



엄마짓 먹은 아이들 건강하네

광주시와 광주시 간호협회는 '엄마짓 먹이기'를 장려하기 위해 8일 광주시 서구 상무리초컨벤션센터에서 '2010 광주시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석한 엄마들이 아이들의 재롱에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천정부지 '장바구니 물가'

152개 품목 중 광주 53개·전남 56개 올라 추석 시름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추석에 앞둔 서민들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다. 작황부진으로 배와 사과 등 과일류의 산지 가격도 급등하면서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추석선물세트 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가 152개 품목 중 전년 동월 대비 오름 품목은 광주가 53개, 전남이 56개로 조사됐다. 반면 가격이 내려간 것은 광주가 30개, 전남이 32개에 불과했다. 폭염과 폭우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가 103.1%나 급등했으며, 마늘(96.5%), 참외(59.7%), 시금치(53.4%), 오이(47.4%), 배추(41.6%), 상추(33.5%) 등 반찬물가가 큰 폭으로

로 치솟았다. 신선식품 이외에도 자동차용 LPG가 17.0% 올랐고 고춧가루(16.9%), 여자구두(12.5%), 대입학원비(12.2%), 소금(11.4%), 설탕(11.0%) 등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반면 같은 기간 가격이 내린 품목은 가루비누(-13.6%), 굴(-10.6%), 쌀(-9.5%) 등이었다. 전남지역도 신선식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생활물가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년새 무가 123.3%나 오른데 이어 마늘(110.2%), 포도(67.9%), 오이(56.4%), 배추(56.1%), 시금치(36.3%) 등이 크게 상승했고, 오징어(33.9%), 고등어(21.9%) 등 수산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추석선물세트 가격이 대부분 올랐다. 무더위, 때 늦은 장마, 태풍까지 겹쳐 수확량이 줄면서 산지구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

▲생활물가=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 정부는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52개 품목을 선정해 작성하고 있다.

랐기 때문이다. 한국물가협회가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20개 품종 194개 품목의 선물세트에 대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사과세트 1상자(5kg)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평균 5만6240원으로, 작년보다 27% 상승했고, 백화점에서는 평균 10만6250원으로 2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 세트 1상자(7.5kg)도 대형마트 4만9240원, 백화점에서는 10만688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2와 28.3% 비쌌다. 한우갈비세트도 대형마트에서는 작년보다 19.5% 오른 7만4700원, 백화점에서는 2.1% 비싼 7만1930원에 팔리고 있었다. /이미리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근현대건축물 '즉흥 관리'

보존기준 없어 남광주역사·수피아여중 별관 등 특하면 사라져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시가 지역문화유산인 근현대건축물들에 대해 명확한 보존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보존 또는 철거를 결정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지역 내 공과대 없이 각종 공공·민간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당수 건축물들이 사라지는가 하면 철거 때마다 찬반 논란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근현대건축물 보존 기준 설정과 목록 작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건축주가 등록문화재 신청을 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존이나 철거 결정은 건축주에게 일임하도록 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통해 관리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축주가 철거해도 제재할 수 없다"며 "대부분 이들 건축물이 도심 내에 있어 보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로 등록된 광주 근현대건축물

종목	명칭	건립시기	지정시기
등록문화재	제16호 전남도청 본관	1930년	2002.05.31
"	제17호 광주서석초등학교(본관, 체육관, 별관)	1930~1943년	2002.05.31
"	제94호 조선대학교 본관(중앙5개 박공부본 건물에 한함)	1954년	2004.09.04
"	제95호 광주 수정초등학교 본관	1931년	2004.09.04
"	제96호 전남대 인문대 1호관	1955년	2004.09.04
"	제97호 광주교대 본관	1939년	2004.09.04
"	제146호 광주 정역동 527번지 가옥	1920년	2004.12.31
"	제158호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1911년	2005.04.15
"	제159호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커티스대모리울	1925년	2005.04.15
"	제370호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울	1927년	2008.02.28

자료: 문화재청

물이 지정 가능해 그 후 건립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보존 가치에 대한 검증도 없이 보존이나 철거가 결정되고 있다.

1971년 건립된 광주시민회관은 철거되고 광장으로 조성되는 반면 1976년 지어진 광주가톨릭센터는 광주시가 254억원을 들여 구입한 뒤 인권센터 및 5·18민주화운동의 문서저장소로 활용기로 하는 등 건립시기에 상관없이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 건축물 보존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근현대건축물 문화재재정사업 기본계획수립 운영'을 발주해 올 초 최종보고회까지 가졌으나, 지역 내 근현대건축물 현황

조사도 없이 광주가톨릭센터·광주극장·현대극장을 근현대건축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실 용역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준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근현대건축물을 포함해 도시 내 역사문화자원을 어떠한 기준으로 보존하고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허술한 정부의 틀에 의존하기보다는 광주만의 정책을 수립해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대중 자서전 김정일에 전해달라"

이희호 여사 요청에 통일부 고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인 이희호 여사가 최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해 통일부가 전달 여부와 경로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실은 최근 통일부에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김 위원장에 전달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이는 이희호 여사가 지난 2일 예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특임장관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자서전 전달 여부, 전달 경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혜 지원 제의에 대해 북측이 '쌀, 시멘트, 중장비' 지원을 해오는 등 남북 관계에 미묘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부는 상황 변화 등을 검토해 적절한 전달 타이밍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서전을 전달할 경우 남북 간의 경의선·동해선 군 통신선 외에 유일하게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 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간 대북 쌀 지원 전향적 검토"

현인택 통일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8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특별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지난 '5·24 조치' 때도 발표했지만 인도주의적인 것은 허용한다

는 입장"이라며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100억원 한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식량자원을 검토할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긴급구조 성격에 맞는 수혜자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한적이 100억 상당의 대북자원을 제의했고, 북측에서 지원

해 주려면 원하는 것을 해달라며 쌀과 시멘트, 굴착기를 원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주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방안

- 객실: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제공
- 돌잔치: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합숙연 · 각종 세미나 (대 · 중 · 소연회장 한배)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작은 믿음이 세상 가장 따뜻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렸던 주인공 대신 갑자기 무대에 오르게 된 아빠... 신인가수라 실망했는지 노래가 끝나도 다들 조용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아빠~ 최고였어요~" 이디션가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에 하나, 둘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아이의 믿음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 가장 따뜻한 무대가 된 날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